

원희룡 장관, “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” 요청

-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함께 움직여야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6일(월) 오후 4시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*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‘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’ 설치를 요청하였다.

* (참석) 국토부 : 원희룡 장관, 국토도시실장, 주택정책관

시도지사 협의회 : 이철우 회장, 유정복·김관영 부회장, 이장우 감사, 이영달 사무총장 등

- 원 장관은 “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‘기울어진 운동장’에 서 있다”면서
 - “이 ‘기울어진 운동장’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”고 밝혔다.
 - “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,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”라고 밝혔다.
 - 또한, 이를 위해 “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·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 - 특히, “전세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”라면서, “서민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청취하고, “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2022. 12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